

비법학사의 3년 완주의 기록



박진홍

- Bellevue High School 졸업
- Johns Hopkins University 화학생명공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졸업
-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유한) 평산 변호사

I. 들어가며

법학과 공학은 각 학문을 수학하는 사람들 간에는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보통일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기 이전의 저 역시, 과학기술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법학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10년이 넘는 오랫동안 외국생활을 하여 국어보다 영어가 편하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여 학부에서는 화학생명공학을 전공하였으며, 교양과목에서도 법학보다는 철학에 더 관심을 가지는 너무나도 전형적인 공학도였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클리셰적인 이공계 출신이었던 제가 법학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정말 우연히도 법과 기술의 접점을 경험해볼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하여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는 과학의 길에서 법학의 길로 진로를 변경하기에 이르렀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글을 기고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미숙하지만, 저는 전형적인 이공계 학생에 외국계로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진로를 완전한 백지에서부터 시작한 지원자였으나 3년간의 배움을 통하여 이제는 당당하게 1명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같이 완전한 백지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법학전문대

학원의 생활과 공부 방법을 때로는 조언으로써, 때로는 반면교사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이러한 글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만큼 어찌 보면 숨기고 싶은 치부조차도 최대한 솔직담백하게 기고하는 제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생활과 공부 방법이, 저보다 열심히 생활하고 계실 법학전문대학원 학우님들 또는 앞으로 열심히 생활하실 지원자 분들에게 참고 및 위안이 되거나 반면교사로서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I. 학교생활

1. 입학하기까지

외국에서의 생활이 길었던지라, 제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당시에는 제 주변에는 저와 같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입하였던 서로연과 법학적성시험에 익숙해지기 위해 잠시 다녔던 학원 등에서 만난 인연들이 저에게 많은 조언을 주었고, 불행 중 다행히도 학교에서도 앞으로의 공부를 위한 지침을 준비해주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입학 전 공부를 하였고, 이러한 준비과정은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인 1학년을 무사히 마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학준비의 일환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법학입문 서적을 읽었고, 어느 정도 용어에 익숙해진 뒤에는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이 한 번 정도는 거쳐 간다는 김준호 교수님, 송덕수 교수님, 양창수 교수님 등 저명한 저자의 민법 기본서를 시간이 날 때마다 읽었습니다.

물론 예습 과정에서는 리걸마인드가 전혀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아 진정 기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정말 개괄적인 개념만 파악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박 겉핥기식 공부도 생소한 법률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하여 학기 중 법학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줄여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질풍노도의 1학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첫 일주일간 저에게 든 감정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진로에 대한 설렘과 흥분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입학식을 치르고, 동기들과 일면식을 나누었으며, 가족 및 친한 지인과 식사약속을 잡는 등 첫 일주일간의 저는 전형적인 새내기 학생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초기의 흥분이 가라앉기까지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주가 지나자 모든 과목에서 많은 양의 읽기자료와 과제들이 쏟아졌고, 이에 어떻게든 발을 맞추기 위해 열람실에 체류하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다 보니 새내기의 모습에서 고시생의 모습으로 변해있는 자신을 어느새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법 교수님의, 조금은 엄하였지만, 체계적인 강의와 형법 교수님의 매우 탄탄한 기본강의로 인해 3년간 공부의 기본을 잘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 교수님은 학생의 질문들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셨는데, 이것이 낯선 법학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지만, 위의 두 교

수님 이외에도 여러 좋은 교수님들의 지도 덕에 1학년 1년 동안 고집스럽게 책과 학교수업만으로 공부하였음에도 평균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들에 대한 악평도 종종 발견할 수 있지만, 좋은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 만큼 선입견 없이 필요한 지도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학 때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휴식을 많이 취했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 때는 1학년 1학기 동안 필기하였던 노트를 복습하는 것 외에는 달리 공부를 하지 않았고, 1학년 2학기를 마친 뒤의 겨울방학에는 조금 부족한 형사소송법을 선행한 것 이외에는 달리 공부하지 않고 그동안 과외를 하거나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결국 이러한 게으름은 제 우직한 공부방식과 같이 저의 2학년 생활을 방황하게 만든 근본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1학년 때 방학을 계획적으로 보내지 못한 점이 어찌 보면 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3년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3. 방황의 2학년

무사히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자 이제 기본적인 법학과목뿐만 아니라 실무과목이 커리큘럼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학년년부터 서서히 학교시험에서 사례형의 비중이 늘고, 2학년 2학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법연수원 실무과목, 그 중에서도 형사재판실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미리 준비하지 않은 저는 검토보고서를 쓰기 위한 형식을 익히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모하였는데, 이것이 제 패착이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 때문에 2학년에 들어서도 1학년 때의 공부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기본서 위주로 예습과 복습을 반복하고, 강사거나 요약서들은 등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여야 할 절대량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과제의 분량도 늘어나다 보니 저는 분량에 치여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수한 동기들은 방학의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선행학습을 하고, 더 효율적인 공부방법을 선배들과 학원으로부터 배워왔으나, 저는 아직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습게 보고 있던 꼴내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2학년 때 성적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2학년 2학기에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과목에서 C+라는 처참한 결과를 내는 등, 제 2학년 생활은 시쳇말로도 좋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나쁜 결과가 반복되자, 심적으로 많이 지쳤는지 2학년 도중에는 1~2주 정도 공부에서 완전히 손을 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지 수업만 듣고, 그나마 하고 있던 예습복습마저 포기한 채로 그저 수업 이외 시간에는 핸드폰을 보거나 집에 일찍 들어가서 게임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같이 공부하던 동기들과 로스쿨 준비과정에서 알게 된 분들이 저의 이러한 나태한 모습을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채찍질 해주며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어 짧은 방황의 기간을 끝내고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4. 심기일전의 3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가 되자 마음이 조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때 두 방학 기간을 허비한 것의 반성으로, 2학년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학원에 다니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조금 더 철저하게 공부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들이 겪는 과정이지만, 저 역시 3학년으로 진학함과 동시에 마음속에 조금함이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분명 객관식 정답률은 올라가고 있었고, 사례형 및 기록형 답안지의 품질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저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만이 발생하여 끊임없이 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목들 중 형사법이 특히나 부족했는데, 개인적으로도 다른 법률들은 법문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였지만, 형사법은 공부하며 수많은 개인적인 견해에서 비롯된 잡념이 제 공부를 방해한 면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고, 이 대로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들자 자포자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3학년이 되니 우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우님들 중에서도 유난히 두각을 드러내는 우수한 동기들을 볼 수 있었고, 이들을 보면서 자기비하는 점점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학년 1학기가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범 유행성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어찌 보면 저에게는 이것이 전화위복이었습니다.

더는 주변의 동기들과 저 자신을 비교할 없이, 순전히 공부에만 집중하고 저 스스로 목표한 공부량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하

자, 실력이 빠른 속도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많이 뒤쳐져 있었고, 완화된 상대평가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원하는 만큼 성적과 석차를 끌어올리지는 못하였지만, 그러한 저 자신의 변화는 착실하게 저를 변호사시험 준비의 궤도로 올려주었습니다.

5. 혼비중천의 3학년 2학기

방학 중 6월 모의고사와 8월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결과들을 받아 본격적인 변호사시험은 더는 막연한 무언가가 아닌 넘어야 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침 3학년 2학기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자, 학교성적보다는 변호사시험에 집중하기로 하고, 공부시간의 대부분은 학원강의를 최대한 많이 돌려보고 이를 복습하는데 투자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3학년 2학기 동안 저의 하루를 루틴화 하여 매일 같은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오전에 자취방에서 일어나면 침대를 정리한 뒤, 바로 책상 앞에 앉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공부하고, 배가 고프면 간단히 점심을 먹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아 강의에 집중하였습니다. 매일 최대한 많은 양을 소화하기 위해 눈에 더는 힘을 줄 수 없을 정도로 피로가 누적되기까지 저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일정을 소화한 결과, 8월 모의고사와 10월 모의고사 사이에 변호사시험 전 범위를 수 회 다시 복습할 수 있었고, 이후 10월 모의고사를 보고 변호사시험을 볼 때까지 회독수를 더 차근차근 늘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준비하면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데, 공부하다가 머리가 돌아가

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한 시간 정도 꾸준히 집 주변을 산책하고 돌아와 복잡한 머리를 정리하고 책상에 앉는 버릇을 들였던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6. 변호사시험 직전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직전에는 누구에게나 패닉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는 합격률 50%인 시험이기에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허수가 없는 경쟁에서 절반 안에 들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합격선으로부터 아쉬운 숫자로 떨어질 수 있는 시험이다 보니 마음속에는 계속 불안이 가시지를 앓았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이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계속 억지로라도 공부를 이어나갔고, 이것이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이란 결과까지 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저는 3학년 2학기 졸업 후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가 고민이었습니다. 남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지만 법학공부는 끝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은 기간 동안 수험서의 회독수를 늘릴지, 아니면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볼지를 고민하다가 저는 회독수를 늘리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7. 변호사시험을 치르며

결국 3년 동안의 노력을 시험하는 날이 다가왔지만, 시험 전날까지도 저는 제가 목표한 양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리 정리를 잘해두었던 학우님들의 경우 모범적인 정리노트를 가져와서 시험을 보기

전까지 최종정리를 하였으나, 저의 경우 시험 치르는 당일 아침까지도 아직 공부하지 못한 잔여 분량을 마저 학습하기 위해 허덕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변호사시험에서 전날까지 공부했던 부분이 과목마다 꼭 등장하였고, 당황스러웠던 공법 과목의 선택형과 기록형 문제들을 거쳐 가면서도 그런 사소한 반가움이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편 조급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기간 동안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일단 보고 있던 책을 덮어버리고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했으며, 대신 오전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3년과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4월까지 합격여부에 대해 전전긍긍해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4월 합격자에 다행히도 제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일자리도 구하여 변호사로서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Ⅲ. 공부방법

1. 학년별 공부방법

(1) 1학년 공부

저는 1학년 동안에는 예습과 복습은 철저히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매일 수업 시작 이전까지 강의계획표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기본서 부분을 미리 읽고 들어갔으며, 수업이 모두 끝나고 저녁식사를 마친 뒤에는 그날 배운 부분을 OX 문제집을 이용하여 빠르게 복습하여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다만 수업 전에 항상 미리 공부를 해두려다 보니 가끔은 책을 읽는데 너무 몰두하여 시간을 잊어버린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친한 동기의 문자를 받고서야 비로소 시간을 확인하여 늦게나마 서둘러 수업에 참여하였던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교과서를 읽으면서 참 많은 양의 형광펜을 사용하였는데, 저는 교과서를 읽으면서 판례의 주요 키워드는 주황색, 학설의 주요 키워드는 초록색, 그리고 교과서의 해설의 주요 키워드는 노랑색을 사용하며 정리하였고, 꼭 외워야 한다 싶은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인덱스 탭을 이용하여 표기해두었습니다.

민법은 워낙 방대한 양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은 포기하였지만, 형법과 행정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1학년 1학기에는 저도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공학학부에서는 무엇보다 응용력을 중시하였기에 약 A5용지 정도의 쪽지 내에 필요한 공식을 적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세세한 부분을 암기하는 방법보다는 큰 그림 위주로 이해하고, 자세한 부분에는 비교적 소홀히 하는 방식의 공부방법이 자리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학은 문제의 해결 능력도 중요하지만, 암기도 매우 중요한 학문입니다. 아무리 해결 능력을 기르더라도 당장 답안지에 현출하여야 할 지식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암기를 아무리 완벽하게 하고 있더라도 시험문제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변형되어 나오기에, 응용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 학부시절의 공부 습관에

익숙하여 암기를 등한시한 면이 없지 않고, 이로 인해 저는 대부분 과목에서 중간고사 주관식 점수 대비 매우 낮은 객관식 점수를 받는 쓸쓸한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따라서 중간고사 이후로는 이에 대한 반성으로 암기에도 꼭 시간을 투자하였고, 기말고사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2) 2학년 공부

2학년 공부는 효율의 공부를 익히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人生萬事 塞翁之馬라, 법학전문대학원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적응하여야 하는 곳임에도 저는 1학년 과정에서 본 초기의 성과만을 가지고 변화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덕에 2학년 때 처음으로 C라는 글자가 성적표에 적히는 고배를 들어야 했습니다.

2학년에는 본격적으로 문제로부터 쟁점을 발췌하여 필요한 법리를 풀어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개별적인 법리의 설명은 매우 자세하지만, 각 법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흡할 수 있는 교수저보다는 강사저를 통해 핵심을 빠르게 되짚고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똑같은 교과서만 반복하여 읽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학년 때는 특히 본격적으로 사례형 및 기록형 작성을 시작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틈틈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은 많이 써볼수록 그에 비례하여 실력이 향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였다가 3학년 때 뒤쳐졌던 부분을 따라잡느라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피하실 수 있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처음부터 변호사시험만을 목표로 하였고, 따라서 검찰실무, 형사재판실무 및 민사재판실무 등 실무과목에 큰 의의를 두지 않았지만, 공직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저와 달리 실제로 연습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방대한 기록으로부터 핵심내용만을 짚어내어 그것을 빠르게 실제 서면으로 현출해내는 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 3학년 공부

3학년이 되어서는 더 이상 침착하게 무언가를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이 다가오면서 최대한 많은 분량을 보아 두어야 하는데, 천천히 무언가를 정리하면서 시험을 준비하기에 1년이란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특히 6월 모의고사부터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게 되면 더욱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제 기준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독수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 공부는 망각과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휘발성이 높은 법리들을 계속하여 머릿속에 집어넣는 공부입니다. 그러나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법리를 꼼꼼하고 확실하게 외우고 넘어가기에는 대부분의 범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에 저는 3학년 공부는 최대한 여러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변호사시험은 한 가지 법리를 깊게 아는 것보다 여러개의 법리들을 답안지에서 충분히 써낼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기에 반복의 중요성은 얼마만큼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2. 과목별 공부 방법

(1) 객관식

학점을 위해 100점 만점을 노린다거나,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제 의견을 잠시 옆으로 치워두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러기에는 많이 미흡하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통과를 목표로 두는 분이라면 무엇보다 합격선을 넘을 정도를 최소한의 시간에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유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식은 무엇보다 필요한 키워드를 짚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공부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객관식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것보다 복습과정에서 틈틈이 풀고, 그 대신 더 많은 판례를 읽어 반복된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면 객관식 문제에서 빠르게 정답을 찾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오답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커트라인을 넘는 객관식 점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3학년에 핸드북과 5개년 최신판례집을 많이 참고했는데, 핸드북은 강사들이 각 법리와 판례들의 주요한 키워드만 모아두어 빠르게 필요한 복습을 할 수 있었고, 최신판례집으로부터 그러한 핸드북에서는 부득이하게 빠지거나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부분을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사례형

사례형은 각 과목별로 많은 공부법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법의 경우 사례형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대로 문제를 풀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법리와 판례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연습하였습니다. 공법과 관련하여서는 저는 별 다른 강사자를 특별히 사용하거나 하지 않고, 학교에서 공동구매하였던 사례형 문제집을 사용하였습니다.

형법의 경우 문제를 풀면서 문장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뽑아서 메모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였고, 이후 그 메모를 기초로 각 사례형 질문에서 묻고자 하는 바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고수하였습니다. 특히 김정철 변호사님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형법사례 문제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쟁점을 예측하며, 관련 연관 쟁점까지 문제의 진행에 따라 차근차근 확장하는 방식의 사례강의는 사례형의 체계조차 제대로 못 잡고 있었던 저에게 가뭇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망의 민법의 경우에는 부끄럽지만 저는 어떠한 체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통상적인 쟁점을 쓰고, 그 쟁점에 따라 문제 되는 학설과 판례를 쓰고, 그에 따라 검토와 포섭을 하는 기초적인 실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변호사시험을 치르기까지 회독수를 많이 늘렸기에 어떠한 법리적 쟁점이 나왔을 때 혼란을 겪었던 일은 비교적 적었다는 것이었고, 어설피게나마 빠짐없이 쓴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은 특히 여러 법리를 넘나드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민법의 각 부분이 다른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겪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진부하지만,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이에 대해 능숙하게 설명하는 강사의 도움을 받는 것 이외에 제가 추가로 더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없는 것 같습니다.

(3) 기록형

기록형은 정말로 쓰는 만큼 늘어나는 시험입니다. 기록형 과목은 기본적인 법 실력에 더하여 빠른 정리 능력과 형식의 암기를 요구하는데, 이는 단순히 교과서를 수 회 읽거나 확실하게 암기한다고 하여 늘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형은 제한된 시간 안에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여 거기서 쟁점을 도출하고, 그 쟁점에 따른 주요한 법리를 형식에 맞추어 써내야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사례형과 마찬가지로 기본 실력이 담보되어야 하겠지만, 쟁점을 도출해야 하는 전체 기록의 양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쟁점을 어디서 무엇을 보고 추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연습이 많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기록형과 관련하여서는, 저와 같이 게을리 하지 않고, 빠르면 2학년 1학기, 늦어도 3학년 1학기에는 매주 1회 이상 써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친구들과 스터디를 짰던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기록형 수업을 수강하시는 등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매주 직접 써볼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V. 공부 외 주요했던 점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에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하라는 것은 굳이 제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3년은 단거리 계주가 아닌 마라톤이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2, 3학년 때 많은 학우님들이 탈력과 실의에 빠져 우울증으로 인해 중도포기하거나, 1년을 더 돌아가는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로스쿨에서의 3년은 자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자기관리에 있어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주변의 많은 도움으로 이를 원만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각자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건전한 취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3년을 슬기롭게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저 역시 동기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나,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학교와 자취방 근처를 자주 산책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한 바 있습니다.

V. 맺으며

저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과정들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에게 맞는 공부방법을 찾기 위한 시행착오부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제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시행착오도 있었으며,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는 것까지도 여러번의 시행착오 끝에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저 역시 많은 방황을 하고 어찌 보면 쉬운 길을 돌아가기도 하였지만, 3년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변호사시험에도 합격하여 이제 한명의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낸 3년의 세월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볼 좋은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미숙한 저도 변호사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다면, 저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배경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충분히 3년을 무사히 마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부족하고 어찌 보면 황설수설하였던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의 3년을 잘 이겨내셔서 모두 어엿한 변호사가 되셔서 좋은 모습으로 바깥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